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온전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저마다 ‘입은 옷’도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온전하게’ 옷으로 만들어서 내보낸 것이다. <각종 기계>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내보낸다.
2. <온전함>도 ‘차원’이 있다. 기본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었으면, 거기서 ‘더 좋게, 더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3. <영의 세계>에도 ‘차원’이 있다. 어떤 영은 ‘나무’로 집을 짓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돌’로 집을 짓는 자도 있고, 어떤 영은 ‘최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도 있다. <차원>마다 다르다.
4. 사람은 ‘지구’에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 <지구>라는 ‘위치’는 온전하게 택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좋게 사느냐’는 각자 차원에 따라 다르다.
5.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는 것>도 ‘종급 구원’과 ‘자녀급 구원’과 ‘신부급 구원’의 차원이 다 다르다. <최고급 구원>은 ‘신부급 구원’이다.
6. <차>를 온전하게 만들듯이, <음식>을 온전하게 만들듯이 저마다 ‘자기 생활’도 ‘신앙의 생활’도 온전하게 하게 만들어라.
7. <온전한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통

해 보다 온전하게 만들어지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시대에 <온전한 것>을 알 수가 없다.

8.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그 입을 통해 말씀해야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9.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온전한 진리’를 말씀하고 행한다.

10.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온전하지 못한 행위로 ‘보낸 자’를 멸시하고 막고 방해하나, 때가 되면 그 육도 영도 스스로 멸함을 받느니라.

11. <온전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 ‘그 온전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는 ‘법칙’이요, ‘이치’다. 곡식을 심어 놓고 온전하게 못하면 죽는 것과 같다.

12. 온전하게 곡식도 심고, 나무도 심었는데 그 후에 죽은 것은 ‘관리’를 잘못 해서 그러하다.

13. <온전하지 못한 관리>를 해서 죽는다. <신앙>도, <사랑>도 그러하다.

14.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온전하게 고치고 만들어야 된다. 그때 못하면, 못한다.

15.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떨 수가 없다.

16. <월명동 돌>도 하나하나 완벽하게 쌓았기에 지금같이 완전하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자기>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완전하게 만들어야 무너지지 않고 마음 놓고 쓸 수 있다.

17. <완전하게 만들기>, <온전하게 만들기>다.

18. <하나님이 보낸 자>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근본을 깨닫게 해 준다.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증거해야 된다.

19. 선생이 산에서 기도생활을 할 때 성자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속 시원히 아는 자가 없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시대 보낸 자’에 대해 속 시원히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실상 구원과 멀다.” 하셨다.

20.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 시대에 해당되는 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시대를 통솔하시고 역사해 가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축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신다.

21.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보낸 자와 함께 할 일을 다 행하고 가신다.

22.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뜻’이 깨졌어도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시고 역사를 펴 오셨다. 고로 <구약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을 보내시어 <신약 역사>를 펴셨다. <구약 때> 아담

과 하와로 인해 역사를 못 폈다면 ‘신약 역사’도 없었을 것이다.

23. <이 시대>도 그러하다. <주>가 ‘시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섭리사는 없어진다. 망한다.” 했다. <못한 자>만 망한다. <주>는 시대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까지 다 이뤘다. 이제는 ‘시대 죄’까지 모두 갚아주고 ‘최고 이상과 낙’을 이루며 가고 있다.

24. <자기 영>도 구원하지 못하고 사망에서 살면서 잔치를 하고 있느냐. <육신>은 먹고 즐기며 살아도, 그 영은 ‘사망권’에 처해 있다.

25. 세상에서 각종으로 누리며 살면서 만족하다고 하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적 인생’만 살다 끝나고 그 영은 영원토록 사망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야 된다.

26. 펄펄 끓는 불이 하늘까지 치솟는 곳만 ‘지옥’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고통을 받는 지옥>도 있다. 피골상접하여 해골만 다니는 지옥, 썩은 통에서 썩은 물만 먹으면서 사는 지옥, 쓰레기만 먹고 사는 지옥도 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산다.

27.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28.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우주 만물과 지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월명동을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29.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30. <자기를 만든 자>에게 벗어나면 안 된다.
31. <자기를 구원시킨 자>에게 벗어나면, 사망으로 간다.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32. 절대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믿고,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야 된다. - 이렇게 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자>이며 <온전한 자>이며, <완전한 자>다.
33. <이 시대>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깨닫고 알아라.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가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누리는 자’ 다.